

# 石亭 李定稷의 문필생활과 시 특성 고찰\*

李月英\*\*

## <차 례>

- |                         |                    |
|-------------------------|--------------------|
| 1. 문제제기                 | 3. 석정 시의 특징        |
| 2. 『癡餘錄』을 통해 본 문필생활의 단면 | 1) 교유의 정감과 이별의 아쉬움 |
| 1) 詩社와 詩會의 결성           | 2) 寫景詩의 詩境         |
| 2) 나이를 초월한 以文會友         | 3) 題畫詩의 化境 追求      |
| 3) 활발한 문학논의             | 4. 맺음말             |

## 1. 문제제기

石亭 李定稷(1841, 憲宗7~1910)은 구한말 호남을 대표하는 대 문호로, 梅泉 黃玿, 海鶴 李沂와 더불어 ‘호남삼걸’로 일컬어진다. 그의 시문집은 본래 『燕石山房未定稿』로 집안에 보전되어 오다가, 1923년 그의 문하인들에 의해 선집본 『石亭先生文集』 7권 3책이 간행된 적 있었다. 2002년에는 김재문화원이 후원하여 번역한 『石亭李定稷遺稿』가 발간됨에 따라, 그의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KRF-2002-073-AS1038)

\*\* 전북대학교

문집이 일단 정돈되어진 양태로 빛을 보게 되어 많은 국학 연구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sup>1)</sup>

『石亭李定稷遺稿』는 『燕石山房文稿』 총9권, 『燕石山房文稿 別集』 2권, 『燕石山房詩稿』 총5권, 『燒餘錄』 『傳家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정직의 문은 기본적으로 文·史·哲 및 經世 전반에 관련되어 있지만, 문학담론적인 문의 비중 또한 크다. 문학창작에 관한 실질적이고 성실한 논의, 『寒暄小品』에서 보여준 편지글의 양식 제시, 역대 고문가들에 대한 품평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래서 문학 이론가로서의 면모 또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sup>2)</sup>

그러나 문예적인 창작에 있어서는 시가 단연 독보적이다. 그의 일상에서 작시는 다반사처럼, 혹은 癖처럼 이루어졌음을 살필 수 있다. 그는 또한 ‘詩書畫三絶’이라고 일컬어지지만, ‘시문이 밥이라면 글씨는 떡과 같다’<sup>3)</sup>고 스스로도 밝혔듯이 서화보다 문학, 특히 시에 더욱 치중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시는 현재, 『石亭李定稷遺稿』 속에서 『燕石山房詩稿』 총5권으로 분류되어 있다.

단 현전하는 시고는 1894년 동학란을 겪고 난 54세 이후 쓴 것을 모아 놓은 것에 불과하다. 동학란으로 인해 그간에 다듬어 완성시켜 놓았던 원고가 모조리 불타버려, 그 이전의 시는 접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석정

1) 이정직 문집의 내력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최영성 교수가 쓴 『석정이정직유고』의 해제를 참고할 수 있다.

2) 철학분야에서는 일찍부터 몇몇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의 성리학 및 실학사상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지만(박종홍, 「이정직의 칸트 연구」; 오종일, 「實學思想的 근대적 轉移 - 石定李定稷의 경우」; 노평규, 「이정직의 실학사상에 대한 연구」, 「석정 이정직의 유학사상에 관한 연구」), 문학방면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 상태였다. 그러다 김제문화원의 『석정이정직유고』 발간을 계기로, 석정의 문장 의식 및 문론에 관한 논문이 최근에 발표되었다(구사회, 「석정 이정직의 문장의식과 문예론적 특질」, 「石亭 李定稷 文論에 관한 研究」; 이월영, 「석정 이정직의 문학론 고찰」). (이정직에 대한 연구사는 이월영의 위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그러나 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3) 『燒餘錄』.

자신의 말에 따르면 ‘나이 7, 8세 때부터 이미 시를 짓고 문을 지을 줄 알았으며, 지금 나이 56세에 이르도록 하루도 손에서 책을 놓은 적이 없다’<sup>4)</sup>라고 하였다. ‘손에서 하루도 책을 놓은 적이 없는’ 공부에의 열정은 그의 沒年인 1910년 70세 나이까지 지속되었지만, 詩心이 가장 왕성했을 청장년기의 시가 그 안에 없는 사실은 애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석정은 그간의 원고가 불타버린 사실에 절망하지만은 않았다. 오히려 그 물리적 손실을 보충하려는 욕망 때문에 작시에 더욱 매진하였다. ‘宿藥가 모두 불타버림에 대한 분함 때문에 文字에 더욱 힘쓰느라 한가할 틈이 없었기에 급기야는 병이 들어 천식기가 상충하고 배와 사지가 부어 열흘이면 팔구일은 앓아서 눈을 붙이지 못했다’<sup>5)</sup>, ‘내 지금 59세인데 만약 70세까지 살면서 매년 360편씩 짓는다면 일생을 마칠 때까지 4천편을 쓸 것이다.’<sup>6)</sup>와 같은 표현들을 통해 볼 때, 그의 창작에 대한 열망은 실로 ‘ 굶주린 자가 밥을, 목마른 자가 물을 갈구하는 것보다 심했다’<sup>7)</sup>할 수 있다. 그 결과 다시 방대한 문집을 집필할 수 있었고, 그 속에는 역사철학적인 논의의 문장들, 시문에 대해 진지하게 논한 문학적 담론들이 다시 다듬어진 형태로 정립될 수 있었으며, 시 또한 문집 구성에 있어 질량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었다. 인생의 한 획을 그으면서 새로 쓴 시들은 그 나름대로의 특성을 지니면서 이미 풍부해진 그의 문학관을 반영하고 있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까닭으로 철학적, 역사적 논의, 문학론에 대한 논의 못지않게, 그의 시작품에 대한 문예학적 접근 또한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4) 弟自年七八時 已知作詩作文 迄今五十有六歲 未嘗一日捨卷(「答許弼園書」, 『연석산방시고2』).

5) 是以 決意南移 賃水田若干畝於竹岸 爲今春耕稼之計矣 不意去月初 宿食爲祟 雜症隨之一日之間 肢腹浮腫 喘氣上衝 坐不交睫資 爲十八九日 蓋由甲午以來 憤宿藥盡火 又用力於文字 無一日安閑之隙 而時時有臨池之役 微責如催租 夜而繼日 迄不暇休(「燒餘錄序」, 『燕山房文藁1』).

6) 「人日得年字」自註, 『연석산방시고3』.

7) 而好之之篤 篤於飢者之食 渴者之飲(「소여록서」, 『연석산방시고1』).

현전하는 『연석산방시교』 5권의 시<sup>8)</sup>에서 볼 수 있는 시적 특성은 대략 두 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다.

첫째, 석정 작시의 장은 그 대부분이 交遊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지기우적 문인들끼리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 唱和詩는 물론이고, 詩社의 결성과 그 곳에서 이루어진 작시, 그리고 문하생들과의 만남에서 이루어진 차운 작시가 그 태반을 이루고 있다. 詩會에서 수작하며 작시가 이루어졌던 것은 과거 문인들 사이에서 행해지던 운치 있는 한 풍조였지만 석정의 경우는 그 비중이 유난히 크다 할 수 있다.

둘째, 그가 ‘시서화삼절’이라고 불리었던 것과 유관한 것으로, 그가 추구한 최고의 畫境은 詩境이었으며, 그의 문예적 장점이 두드러진 시의 특성은 또 繪畫의이라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詩畫一致를 추구했던 사실을 구체적 시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으며, 특히 題畫詩를 통해 詩·書·畫의 통합적인 예술경계를 형상화했던 동시에 詩畫論도 함께 피력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그의 회화적인 시 또는 제화시에 그의 시문예적인 장점 및 특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상 밝힌 바처럼 현전하는 시작품을 두고 볼 때, 이정직 시작생활의 주된 場은 교유였으며, 이는 어찌면 그의 인생 轉期와도 유관할 듯 하다. 1895년 봄 그는 원고가 불탄 충격에서 벗어나 鳳城(구례)를 방문하여 그곳에 살고 있는 매천 황현을 비롯한 몇몇 문인들을 만나고 돌아왔는데, 이를 기점으로 그의 문필생활은 다시 시작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여행의 내력을 소상하게 기록한 『소여록』이 있어, 그의 문필생활의 단면을 여실하게 보여준다.

8) 시의 편찬이 연대기 순으로 되어있다. 이는 두 가지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연석산방시교』에 실린 많은 분량의 시들이 1895년 구례를 방문하여 그곳의 문인들 및 문하인들과 주고받은 창화시 및 도중시이며, 경유지의 순차에 따라 시가 실려 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매년 元日 혹은 특정한 날에 시를 쓰면서, 그 연도를 밝힌 사례가 발견되는데, 그의 생몰연대인 庚戌(1910)年의 시 까지 보인다. 이로 인해, 말년 그의 작시의 추이를 파악할 수 있다.

본고는 이정직의 교유가 그 주된 장이었던 문필생활의 면모와 시의 특성을 살피는 데 그 목적을 두고, 그의 문필생활의 단면을 가장 절실하게 보여주면서 동시에 만년 문필생활의 지침이 되었던 『소여록』을 분석하여 정리한 후, 그의 시적 특성을 살펴보겠다.

## 2. 『燒餘錄』을 통해 본 문필생활의 단면

『소여록』은 동학란 때 그간 정리해둔 원고가 불탄 충격에서 헤어나, 鳳城(구례)에 있는 몇몇 문인들을 만나려 乙未(1895)年 춘분 다음날 출발하여 4월 초<sup>9)</sup>까지 이어진 여행일정을 소상히 기록한 일종의 기행문이다. 『소여록』은 그 여정을 개괄한 『巽遊錄』을 수록한 뒤, 경유지마다에 해당되는 일지를 싣고 있는데, 그 일지에는 그 곳에서 이루어진 만남, 만난 인물들과의 일화, 인물에 대한 소개, 그리고 특정인물과 이루어진 토론 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은 시들은 『연석산방시고1』의 일정 부분에 수록되어 있으며, 시의 제목, 시의 내용, 唱和한 인물, 명기된 지명 등을 통하여, 『소여록』의 각 부분과 대조 확인이 가능하다.

이 여행은 그의 만년 문필 생활의 기점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동학란으로 불타버린 그간 원고에 대한 충격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필생활을 출발하는 의미가 부여되어 있으며, 그의 만년 문필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친 梅泉 黃玹 및 王小川과의 교유도 이 여행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석정의 시고를 보면 1897년에 다시 봉성의 곳곳을 방문해 해학, 매천, 소천을 비롯한 인물들을 만나 시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1895년 봉성 여행에서 처음 사귀어 시를 주고받으며 문학에 관한 담론을 나누며 그 감동을 간직했던 매천 그리고 소천과도 서신왕

9) 4월2일 冷泉을 떠나 출발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돌아오는 여정이 며칠이었던지는 확인할 수 없다.

래를 통해 혹은 방문을 통해 지기지우적 관계를 계속 유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1) 詩社와 詩會의 결성

이 『소여록』은 우선 詩社結成 및 詩會의 정황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준다. 「安和雅集序」를 보면, 帶方(南原) 安和에서 그 곳 문인들과 詩社를 결성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옛 일을 흥내 내어 대방의 문인들과 雅集을 만들고, 봄과 가을 한 차례씩 꼭 만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그곳에 사흘간 머물면서 운에 맞추어 화창한 사실이 보인다. 석정 자신이 서문을 쓰고, 좌측에는 賢인들이 날인하고, 마을 이름을 따서 ‘安和雅集’이라는 詩社를 결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

「遊華嚴寺記<sup>1,2)</sup>」에는 海鶴 李沂가 화엄사에 眞率會를 마련해 대대적인 시회를 가졌던 이야기가 나온다. 시를 짓겠다고 진솔회에 모여든 자가 15인이었다. 석정, 소천, 해학이 詩老로 추대되어 주최한 진솔회 광경이 자세히 기술되어있다. 운을 정한 뒤 각양각색의 태도로 곱吟하여 시를 제출하는데, 시가 완성될 때마다 글씨에 능한 梁子潤은 그것을 써준다. 어두워질 무렵 시 짓기를 모두 마치고 각자가 지은 시를 차례로 낭송하였는데, 사람들은 벌떼처럼 모여들어 감상하였고, 목소리 청량한 자를 추대하여 함께 낭송하기도 하였다. 그들 시에 대한 이정직의 품평이다.

대저 현자들과 젊은이들의 기백은 날카롭고 재기는 매우 뛰어났으며 게다가 큰 詞宗에게 단련까지 받아 색채는 찬란하고 음은 높ی 올랐다. 이처럼 묘함이 도처에서 뜻과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벗어났으므로,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모두 동요시켜 너울너울 춤추고 싶도록 만들었다. 篇章이 때로는 들쭉날쭉하기도 하였으나 그 나이를 보면 갓출 것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절에 3일을 머물면서 운을 택하여 시를 지은 것이 네 차례였다.<sup>10)</sup>

회암사에서 이루어진 진술회는 성대한 시모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소천 해학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일, 스물 안팎의 영재들이 그를 從遊한 일에 대한 감격의 피력으로 이 기록을 맺고 있다.

이 『소여록』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한 사실은, 석정과 교류 문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湖南詩社 활성화의 가능성이다. 봉성으로 향하는 도중 안화에 들러 ‘안화아집’을 결성하고 그 서문을 기록한 사실, 회암사에서 시모임을 진술회로 명명한 사실, 그리고 머물렀던 곳곳에서 이루어진 詩會와 관련인물들의 모여들을 볼 때, 그 단초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이후 쓰여진 시들의 제목이나 주에서 자주 보이는 詩社에 대한 언급과 연관된다. 시고 가운데 언급된 그 대략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시고2』: 「春暮向鳳城 杏社諸君 前一日作餞春會」, 「自杏亭離發 社中諸人 送至洞口 分別口占」, 「雲城社伴至...」, 「社中諸生 分曹較藝 以萬壽香一炷爲限 共賦」, 「贈社中諸生」,

『시고3』: 「靑峰玉下 以余在杏亭開社爲社長 意欣然欲入社中 觸暑遠來...」, 「...今年夏在杏社時 申南沙...」

『시고5』: 「上詩亭 與趙湖亭趙海石趙三坡趙恍雲會葵庭 菖礪又儂九何 亦到得歡字」, 「萬壽聖節 登又蘭亭 與金琴隱趙可儂趙南愚共賦 趙醉峯趙海石趙菖礪亦至」, 「余嘗作月一社序 社員要余 一參社會 難孤其意 遂登又蘭亭共賦」, 「郡中詩社見邀 以病不赴 追次其韻」, 「合郡詩社集又蘭亭」, 「赴詩社」, 「赴詩社 是時適有所感之懷 詩興頓減 強而賦」, 「穿紅亭作詩社會」, 「詩社追題」-丁未冬(1907겨울), 「逍遙亭成 余未一登焉 而詩伴要余共吟 及赴則天氣尚有餘寒 乃下岡而設席于穿紅亭」-己酉(1909)

위에서 보는 바처럼, 杏社, 雲城社, 月一社 등 구체적인 詩社의 이름이

10) …大抵群賢年少氣銳 英才發越 而又經鍊于巨詞宗 燦爛其色 鏗鏘其音 其妙到處 出於意想之所不及 使人形神俱動 僂僂欲舞 篇章時或有出入 然視其年 有不可以求備也 留于寺三日而占韻者四.

거론되기도 한다. 짐작하건대, 杏社는 시회를 杏亭에서 개최하였기 때문에 주어진 이름인 듯 하다. 杏亭이 그렇듯 又蘭亭, 穿紅亭, 逍遙亭 등이 詩社의 장소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시사의 시회가 특정 장소 혹은 주어진 정자에서 이루어지면, 그 시사에 속한 인원들이 모여 작시 창화했으며, 혹은 그 시사에 속하는 제생들이 조를 나누어 시간을 정해놓고 작시 교예하는 백일장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구례 여행 중 화엄사에 석정, 매천, 해학, 소천의 문인들이 모여 글재주를 겨뤘던 것도 그 일환이다. 석정은 그러한 시사에서 대부분 핵심인물 또는 長 역할을 했으며, 소속되지 않은 시사에 초청되어 작시하거나 서문을 지어준 기록들도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시회는 문인들의 교류장소이며, 동시에 후진양성의 장으로 작용했다. 당시에 활발했을 호남지역 시사에 관해서는 석정과 교류했던 문인들의 문집을 조사하여 구체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 2) 나이를 초월한 以文會友

구례로 향하는 도중 그가 이르러 묵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그와 친교를 맺고, 시를 주고받으며, 시에 대한 강론을 펼치고, 만남을 기뻐하고 헤어짐을 아쉬워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留萬壽洞記』에서 보인다. 만수동에 5일간 머물면서 이루어졌던 시회에 대한 감격과 만수동에서 이루어지는 師友之間의 강론을 목격한 감동에 대한 기술이 주를 이룬다. 만수동에 이르러 許卯園을 방문하니 그는 매천이 기거하고 있는 苟安室로 석정을 안내한다. 이로 인해 석정과 매천은 감격스런 첫 대면을 한다. 그들은 마주 앉아 새벽닭이 울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고, 날이 밝을 무렵에는 卯園, 매천의 문생 翠軒, 매천의 아들 鍊九와 더불어 『劔南集』을 차운하여 작시한다. 다음날 晡時에는 白村 李善吾, 매천의 아우 石田이 찾아와 합세한다. 석정은 그 곳에서 5일을 머물면서 제현들과 수많은 시를 주고받았고, 그 곳에 鄒魯의 향풍이 있다고 탄복한다. 만남은 곧 시회로 이어지

고, 師友 및 師弟가 한 자리에서 밤낮 며칠을 연이어 詩作했음을 볼 수 있다.

「重留冷泉記」에서도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첫 대목이다.

화엄사로부터 동네어귀를 나와 모 점사에 이르자 鍊九는 먼저 작별을 하고 떠났다… 그날이 3월 29일이었다. 내가 구례에 온 것은 해학·매천·묘원을 만날 목적에서였으나, 이처럼 많은 새로운 사람들과 결친을 맺고 풍류와 운치를 질탕하게 즐기면서 자석에 바늘이 이끌리듯 서로 감응하고 감동하여 사람의 정신으로 하여금 왕성하게 만드는 데까지 이르렀다. 다만 이지러진 부분이 아직 다 차지도 않았는데 유수 같은 세월은 매우 빨리 지나가 버렸으니, 옛 사람들이 이른 바, “꽃이 폼에 풍우 많으니 (花發多風雨)/ 인생살이 이별하기 족하네 (人生足別離)”는 바로 이러한 때에 해당하는 것이리라. 그래서 못 현자들과 고별하였다.<sup>11)</sup>

그런데 문득 검은 구름이 몰려들고 콩알크기만한 비가 내려, 석정 일행은 출발하지 못하고 해학의 거주지인 냉천으로 간다. 그날 저녁부터 석정은 오한이 들고 앓게 되어 사람들의 만류로 결국 3일을 더 머문다. 그러나 그 아픈 중에도 운을 선택하여 시를 지으며, 제현들의 시를 품평하고 ‘警語’ 평을 받은 세 사람은 각자 술을 가져와 魁禮를 치루기도 하다.

『논어』에서, ‘군자는 글로 벗을 사귄다’<sup>12)</sup>라고 했듯이, 선비들 사이에서 벗들과 이루어진 시문을 통한 교류는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나 그 보편성을 인정한다 해도 석정의 경우는 유별나다. 그의 인간적 교류자체가 詩友間的 범주를 벗어나지 않은 듯하며, 시우 및 그를 추종하여 모여드는 젊은 문학생들과 이루어진 술한 시 모임이 석정 시작의 주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는 시작을 위해 벗과 교

11) 自華嚴寺出洞口至於某店 鍊九先辭去 盖其王考緬衰 在於再明日 而時三月二十九日也 余之來求禮 爲見海鶴梅泉卯園 而至是多結新知 風韻迭宕 針磁常感 令人神旺 但缺界未圓 流光迅駛 古人所謂 花發多風雨 人生足別離 正在此時 酒告別于諸賢.

12) 曾子曰 君子以文會友 以友輔仁(『論語』12 顏淵).

유하고 끊임없는 시회를 가졌으며, 시작을 위해 여행했으며, 그러한 시심 지속을 위해 그의 명성을 듣고 온 젊은이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나갔던 듯하다.

『연석산방시고1』 가운데 <土金書齋拈堂字>라는 제명으로 된 석정의 시 뒤에 이 시를 차운한, 왕소천, 이해학, 허묘원, 이옥초의 시 및 9인의 1聯을 실으며, 작자의 號·字·居住地·생년 등 간략한 소개를 제명 대신으로 쓰고 있으며, 그 마지막에 自註를 다음과 같이 붙여 놓았다.

이때 시를 써 나를 전송한 자가 십여 사람이었는데, 왕소천과 이해학은 나와 把臂를 허락하는 자이고, 허묘원, 이옥초, 양청사는 모두 시문으로 나를 從遊하는 자이며, 만수동에 사는 자들은 매천을 따라 배우는 자들이요, 토금에 사는 자들은 소천을 따라 배우는 자들이며, 냉천에 사는 자들은 해학을 따라 배우는 자들이다.<sup>13)</sup>

위 문장을 통해볼 때, 이정직은 以文會友의 범주를 把臂者和 從遊者로 구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실 이정직이 존경하며 사귀었던 매천도 그보다 14세 아래였으며, 비록 종유자에 속하는 문인들에게조차 나이의 차를 초월하여 시교를 맺고 왕래한 사실을 볼 수 있다.

### 3) 활발한 문학논의

석정은 시서화에 모두 뛰어난 소질을 보였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그가 가장 애착을 보인 것은 시문(詩文)이었다. 그 스스로도 ‘시문이 밥이라면 글씨는 떡과 같다’고 비유적인 말을 하고 있을뿐더러, 스스로를 ‘詩癖’으로 자처하기도 했으며, 이러한 시문에 대한 관심은 또 그로 하여금 정치한 문학론을 전개하도록 하기도 하였다.<sup>14)</sup> 이러한 그의 특성은 여행 일지인

13) 時以詩送者十餘人 王小川 李海鶴 與余許把臂者也 許卯園 李玉樵 梁晴史 皆以詩文從余遊者也 居萬壽洞者 從梅泉學 居土金者 從小川學 居冷泉者 從海鶴者也.

『소여록』 곳곳에서도 보인다.

「留鰲山記」는 여행 동행자인 오산에 사는 그의 제자 梁子潤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룬다. 자운은 14세부터 석정을 찾기 시작했고, 글씨에 특별한 재주가 있으며, 한 해에 한 두 번은 석정을 찾아와 그 때마다 수십 일을 머문다. 그 해 정월에도 석정을 찾아와 우환 중에 있는 석정을 위로하느라 수십 일을 함께 하던 중, 해학과 매천이 있는 구례에 가 그들을 만나자는 석정의 제안에 따라 봉성을 향한 여행에 동행한다. 결국 자운의 집에 머물면서 그의 부친 南坡에게 재주 있는 자운이 시문에는 노력을 경주하지 않는 안타까움을 토로하면서, ‘천하에 才士 없음을 근심할 것이 아니라 詩癖 없음을 근심해야 한다’고 말한다. 자운은 석정과 가장 친밀했던 門人으로, 글씨에는 것처럼 탁월한 재주를 보이면서도 시문 짓는 것은 달가워하지 않았다. 그런 자운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석정에게서 문학에의 열정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다.

그가 구례 여행을 작정했던 일차적인 원인도 당대의 최고 문인이었던 매천 황현을 만날 목적에서였다. 「留萬壽洞記」에 보면, 만수동에 며칠 머물면서 황매천의 글을 읽고, 그를 善學이라 평하고, 자신의 시문의 단점, 매천 시문의 장점에 대하여 자세히 피력하였다. 그때 석정은 14세나 연하인 매천과 각별한 친분을 맺고 존경하며 둘도 없는 忘年友 관계를 유지하며 많은 편지를 주고받았다. 그 가운데 시문에 관한 논의에서는 어느 누구도 양보하지 않는 극단적 대치를 보이곤 했지만<sup>14)</sup>, 그 둘 사이의 친분이 그토록 각별했던 것은 결국 문학에 대한 공통된 관심 때문이었다.

「與王小川問答記」에서는, 土金에서 묵은 날, 왕소천과 더불어 시문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기록하였다. 이는 주로 해학 이기와, 매천 황현의 시문의 특성 및 장단점을 논의한 것으로, 소천이 질문하고 석정이 답하는 양식으로 되어 있다. 詩性의 상대성에 대한 석정의 답변, ‘工·性’에 대한 피력

14) 이에 관해서는, 이월영의 「석정 이정직의 문학론 고찰」 참고.

15) 이월영, 앞의 논문 참고.

등 석정 문학론의 골자가 제시되어 있다. 소천은 두 사람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지적하는 석정의 감식안에 대해 水鏡이라고 감탄하고, 석정은 시에 관한 소천은 위 두 사람과 鼎立關係를 이룰 수 있다고 평가한다. 매천과 그랬듯이 소천과도 첫 대면에서부터 막역한 관계를 맺게 되고 이후 긴밀한 서신왕래가 이어진다. 이들의 교유가 그렇게 단번에 막역해져 이후로도 계속 지속될 수 있었던 원인은 바로 詩文을 통한 交遊였던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與海鶴論詩文記』에서도, 석정이 해학과 시문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소개하였다. ‘工/性’, ‘新奇’, ‘寫意/傳神’ 등 석정 문학론의 핵심적인 부분들이 논의되어, 그의 문학론의 골자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상 살펴본 바처럼, 『소여록』은 기본적으로 여행 일지이지만, 그 일지가 마음에 둔 문인을 만나러 목적지로 가는 도중, 각지의 문인들을 찾아가 만나고, 찾아오는 수많은 문인들을 만나 교유하고·시작하고·시사를 결성하고·시회를 가지고·시문에 관한 논의를 하는 등, 온통 문학에 대한 관심으로 점철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그의 시문집 전반을 이해하는데 있어 이 『소여록』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으며, 화재를 겪고 난후 불가피하게 재판집될 수밖에 없었던 『연석산방미정고』의 지침 및 시발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 3. 석정 시의 특징

앞서 언급했던 바처럼, 『연석산방시고』에 실려 있는 석정의 시는 일단 동학란 이후 집필한 원고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사실은 『연석산방시고 1』이 갑오년 동학란에 대한 유감을 토로한 시<sup>16)</sup>로 시작하고 있음을 통해서 재확인된다.

16) <有感>-甲午

석정의 시고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특징적인 면모는, 앞서 누차 확인한 사실이지만, 문인들 즉 把臂者 및 從遊者들과의 교유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시가 유독 많다는 사실이다. 시회에서 이루어진 唱和詩, 次韻詩, 書簡詩, 拈韻詩<sup>17)</sup>, 여정 중 쓴 途中詩, 송별시, 知人에 대한 그리움을 토로한 시, 등등이 모두 이에 속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가뭄을 근심한 시, 생활고를 읊은 시, 時事를 읊은 시, 즉흥시 등 교유관계와는 무관하게 일상을 소재로 한 시들도 적지 않으며, 그가 ‘詩書畫三絶’이라고 일컬어졌던 만큼 題畫詩도 유독 많은 편이다. 그러므로 그의 창작 양태상에서 볼 때, 그의 시작은, 詩會가 그 생활의 중심을 이루면서 동시에 일상의 모든 것이 그의 시로 수습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시인으로서의 석정의 개성적인 면모는, 교유의 정감과 이별의 아쉬움을 표현한 시, 畫境을 추구한 寫景詩, 詩·書·畫에 대한 동시적 관심에서 출발한 題畫詩 등 순수 문예시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고는 석정의 시를 순수문예적인 교유시, 사경시, 제화시 중심으로 살펴, 그의 시가 지닌 정감적 특성 및 기법적 특성을 예술미학적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1) 교유의 정감과 이별의 아쉬움

詩會라는 주어진 場에서 시를 짓는 것은, 그 시인의 기발함이나 재능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주어진 소재, 주어진 압운을 따라야 하는 형식적인 제한으로 인해, 당장 깊은 맛을 내는 시를 짓기란 여

17) 염운시는 특정시인의 특정 시의 운을 따서 시를 짓는 일종의 차운시이다. 석정의 시고에는 이 염운시가 유독 많다. 교유문인이 둘 셋 모이면 으레 염운시를 지었음을 볼 수 있다. 염운시 대상 시인은 총체적으로 보면 다양하다. 당 송 명 청 그리고 당시의 시인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그 가운데 당 시인의 시를 염운한 경우가 많으며, 당 시인가운데에서도 두보의 시를 염운한 경우가 단연 독보적이다. 이는 그가 시인으로서 두보를 최고로 여겼던 사실과 유관할 것이다.

의치 않을 것이다. 시회 속에서 짓는 시는 아무래도 기예를 겨루며 친목을 다지고 후진을 양성하는데 더 의미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詩會에서 이루어진 시 중 이채를 띠는 것은, 그래도 만남의 즐거움 혹은 감격을 읊은 시들이다.

鳴雨一過庭宇涼	비바람 지나가자 뜰 서늘한데
雲岑烟壑何靑蒼	구름 낀 산봉우리 내 낀 골짜기는 어찌도 푸른지
上枝下枝蟬吟樹	위 가지 아래 가지 매미 울어대는 나무
已開未開荷滿塘	핀 연꽃 피지 않은 연꽃 가득한 못
里落穰穰帶稼色	마을 넘실넘실 벼 빛 띠고 있고
衣巾馥馥生書香	의복과 두건에선 그윽한 책 향기 나네
高談雅謔摠成趣	고상한 말 우스갯소리 모두 아취 이루니
相對不知山日長	서로 마주함에 산속의 날 긴 줄도 모르네

<戲作拗體><sup>18)</sup>

문인들이 모여 서로 이야기 나누며 웃는 정겨움을 그려내고 있는 시이다. 큰 비 지나고 청량해진 산골짜기, 매미 우는 소리 가득한 나무, 연꽃 가득한 못, 마을에 넘실대는 곡식 물결, 시각적 청각적으로 청량하고 고요한 산골 마을에 유자들의 의복에서는 책 향기 묻어날 듯하다. 그들이 나누는 고상한 말, 웃음을 자아내는 농담들은 나름대로 각자 운치 있다. 산골의 정갈한 풍경과 책 향기 풍기는 유생들의 정담과 한유는 그 운치가 정합한다. 寫景의 성격이 강하고 그래서 무척 회화적이다. 유생들이 모여 책을 끼고 담소하고 희학하는 활기 넘치는 분위기가 생동감 있게 묘사되어 있다.

歷落風懷得暫開	끊이지 않는 시심 잠시 여니
澆胸不獨在含杯	흉금 씻어냄이 술 마심에만 있는 것 아니어라
尋常語笑成佳趣	예사롭게 웃으며 말 나누는 것도 아름다운 운치 이루니

18) 『연석산방시교4』.

夜夜長如此夜來 밤마다 오래도록 이 밤 같기를

<夜坐與醉峯菖礪九何 拈唐詩七絕韻 得秋開二字><sup>19)</sup>

사회에서의 작시는 흥금을 씻어내기에 족하고, 사소하게 나누는 말조차 아름다운 운치를 이룬다. 만남의 즐거움이 이보다 더 할 수 없고, 삶 속에서 느끼는 즐거움 또한 이 보다 더 할 수 없다. 사회에서 벗들과 어울려 작시하고 한담하며 술잔 기울이는 것은 작가의 삶 속에서 가장 의미 있을, ‘밤마다 오래도록 이와 같기를’이라는 원망 속에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정담과 작시가 인생의 낙이었기에 석정 생활의 중심축은 사회를 통한 교류였던 듯싶다.

만남의 의미가 클수록 이별의 아쉬움 또한 큰 것은 정해진 이치이다. 만남의 기쁨을 읊은 시 못지않게 이별의 아쉬움, 그리움의 정을 읊은 시들도 석정시에서 이채를 띤다.

臨歧不忍別  
更送到河梁  
依依堤上柳  
相對如相望

갈림길에서 차마 헤어지지 못하고  
더 전송하다 하천 다리에 이르렀네  
부드럽고 약한 독 위의 버드나무  
서로 대하여 서로 바라보는 듯하네

<橋頭別申南沙 李肇雲><sup>20)</sup>

이별해야 할 갈림길에 이르러서도 이별하지 못하다, 다시 하천 다리에 이르러 이제는 이별할 도리 밖에 없는 시점이다. 이별의 아쉬운 심정을 직접 표현하지 않고 ‘독 위에 서있는 부드럽고 약한 버드나무, 서로 대면한 채 서로 바라보는 듯한 버드나무’의 자태로 시선을 돌려 헤어짐의 아쉬움을 대신하였다. 寫景을 통해 情景交融을 유도했다.

19) 『연석산방시고5』.

20) 『연석산방시고1』.

訪我他時到碧城    나를 찾아 벽제성에 훗날 이르면  
 殷勤說到此時情    지금의 심정 은근하게 말합시다  
 名齊不計年多少    이름 나란히 함 나이의 많고 적음 계산 않으니  
 惟願詩成把臂行    시 이루어지면 팔 잡고 친밀하기 원할 뿐  
 <李白村依依不忍別 隨余至錦城時店同宿 翌日以絕句二首送之><sup>21)</sup>

백촌은 구례 만수동에 사는 매천의 從學者로, 석정이 1985년 구례를 방문할 때 만나 유독 석정을 추종했던 자이다. 그리고 이 시는 바로 그 때 쓴 시이다. 이별해야 할 시점에서 아쉬움 때문에 이별하지 못하다가 하룻밤을 더 묵고 난 그 다음날에 헤어지면서 백촌에게 준 시이다. 벽제성은 석정이 사는 김제에 있는 곳이다. 1, 2구는 사귀의 정이 지속될 것을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석정은 매천보다 14세 위이다. 白村이 매천의 종학자이니 매천보다도 한참 연하일 것은 분명하다. 그러기에 3, 4구에서 나이는 이름 나란히 하는데 구애될 것 없으니, 시 이루어지면 친밀하게 팔 잡고 가자 권유하였다. 시교를 통해 마음이 맞자 석정은 곧 忘年友를 생각한다. 매천과도 나이의 차이를 잊고 존경하며 사귀었듯이 그의 제자인 백촌에게도 이 같은 태도를 취한 것이다. 시를 통한 교유를 최고의 낙으로 여겼던 석정이었기에 가능했을 표현으로 여겨진다.

記得前宵夢裏人    어젯밤 꿈속에 만났던 사람 기억하나니  
 殷勤說到此時情    짙짙 웃으며 친한 정 보였지  
 東南渺渺神常在    동남 아득한 곳에 마음 늘 있으니  
 難道相逢不是眞    서로 만났던 것 진실 아니라고 말하기 어렵네  
 <小川見余所作書畫帖 以絕句六首贈 余藏之篋衍 適閒居檢書得之...><sup>22)</sup>

아쉬운 이별은 그리움을 남기기 마련이다. 소천은 봉성 방문 당시 처음 접하여 지음관계를 맺고 문학에 대해 심각한 논의를 전개하기도 했던 문

21) 『연석산방시교1』.

22) 『연석산방시교2』.

인으로, 석정이 把臂者로 구분 지었던 인물이다. 소천이 석정의 시화첩을 보고 절구 6수를 지어 주었는데, 석정이 그 시를 상자에 싸서 잘 보관해두었다가 한겨하던 차에 꺼내 보고 차운하여 지운 6수 중 세 번째 시이다. 그리움은 꿈으로 이어진다. 꿈에 만나 현실에서는 마음대로 이를 수 없는 정친함을 이루었다. 그런데 내 마음만은 늘 그대 소천이 있는 아득한 동남 쪽 그 곳에 가 있었으니, 꿈속에서 그대를 만남은 그 정신이 행사한 진실이라는 강변이다. 상사로 인한 몽중상봉 모티브를 차용하고, 그 夢魂의 행사에 진실성을 부여함으로써 그리움의 밀도를 표현하고 있는 시이다.

昔我未相見	지난날 내 만나지 못해서는
相思空斷魂	그리움에 부질없이 넋 잃었지
一從到山閣	산 누각에 이른 후로는
對坐却無言	마주앉아 도리어 말 없네

〈舟村書室〉23)

주촌은 구례에 있는 지명이다. 1985년 방문 이후 1987년에 재차 구례를 방문한 사실이 시작품 곳곳에서 확인된다. 그 때 주촌 서실에서 지인들을 만나 그 기쁨을 표현한 시이다. 현실에서 볼 수 없으니 상사로 인한 몽중상봉에 넋을 잃을 지경이었다고, 남녀간의 상사에 빚대어 그리움의 강도를 표현하였다. 그러나 그리워했던 이들과 만나 마주하자 정작 말을 잊지 못했다는 것은, 감격에 때문에 말을 잃은 것일 수도, 아니면 至言無言의 이심전심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상 살펴본 바처럼, 파비자 및 종유자와 이루어진 교유와 얽힌 시들에서는, 만남의 기쁨과 감동, 이별의 아쉬움, 별리 상태에서의 고통 및 그리움, 재회의 기쁨 등을 정감 있게 서정적으로 표현하였다.

23) 『연석산방시교2』.

## 2) 寫景詩의 詩境

석정의 시들 중에는 지인들과의 만남을 위해 길을 가다 지은 途中詩도 많다. 그리고 여느 시인들처럼 시인의 시적 특성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무목적성의 즉흥시들도 적지 않다. 이러한 시들에서 감지할 수 있는 특징은 寫景에 치중하여, 繪畫性 강한 시를 쓴 점이다. 우선 途中詩 한 편을 살펴보겠다.

江水千尋碧	강물은 천 길 푸르고
雲山萬疊幽	구름 낀 산은 겹겹이 그윽하네
倚筇春日永	지팡이에 의지한 봄날 긴데
沙上喚孤舟	모래 위에 외로이 떠 있는 배 부르네
	〈柿木津口占〉 <sup>24)</sup>

화자의 시점이 푸른 강물에서 구름 낀 겹겹의 산으로 옮겨가다, 중국에 는 시적 화자 자신으로 옮겨왔는데, 그 자신도 묘사의 대상이 되어 한 폭 의 그림 속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다. 푸른 강물 구름 낀 산을 배경으로 지팡이에 의지한 시적 화자인 객이 강을 건너고자 하여 배를 부르고 있는 경물이 선연하여, 詩中有畫라 평할 만하다. 이처럼 회화적 성격이 강한 사경시는 석정 시의 한 특성을 이룬다. 즉흥시 또한 같은 회화적 특성을 보인다. 〈雪中閒坐〉<sup>25)</sup>이다.

春風吹急雪	봄바람 급한 눈 불어오니
高下滿天飛	높게 낮게 하늘 가득 날리네
掩廬成端坐	문 닫고 단정히 앉아
時間大撲衣	때때로 옷 터는 큰 소리 들네

24) 『연석산방시고』.

25) 『연석산방시고』.

1, 2구에서는 우선 심한 풍설을 묘사하였다. 그 상황이 ‘高下滿天飛’로 묘사되어 있다. 시적 화자는 문 닫고 단정히 앉아 눈 터는 소리만을 듣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시적 화자조차 그림 속의 경물이 되고, 눈 터는 청각적 감각도 시각적 감각으로 포착된다. 앞서 보았던 시처럼 시적 화자도 묘사의 대상이 되어 그림 속의 인물로 화해버리며, 모든 감각이 시각으로 귀결되는 회화적 속성을 지닌다. <卽事><sup>26)</sup>이다.

暗淡行雲遊滿天	어둡고 쓸쓸한 열구름 하늘 가득 노닐고
空處漏日光斜連	빈 곳으로 새는 햇빛 비스듬히 이어지네
暑氣熏人風不動	더운 기운 사람 그을리고 바람 꿈쩍 않는데
手持一卷當窓眠	손에 한 권 책 든 채 창가에서 잠드네
山鳥下庭相和鳴	산새들 뜰에 내려와 서로 어울려 울어대고
出牆青樹橫夕煙	담 위로 솟은 푸른 나무 저녁연기 가로 질렀네

구름 질게 드리운 여름날 저녁 광경을 그린 시이다. 암담한 구름 하늘 가득하고, 빈틈으로 햇빛이 더러 새어나온다. 더운 기운은 찌는 듯한데 바람은 미동도 없다. 시적 화자는 책 한권 들고 그 오후를 창가에서 보내다가 잠들어 있다. 새들은 뜰에 잔뜩 내려와 저희들끼리 어울려 재잘댄다. 담장 위로 솟은 나무는 밥 짓는 저녁연기에 가지를 가로지르고 서있다. 이 시에서 등장하는 인물 또한 화폭에 담긴 대상일 뿐이다.

순수한 사경시는 대부분 絶句 혹은 짤막한 고시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 광경이 주는 정취, 그 광경에서 느껴지는 언외지의적인 유장하고 선명한 이미지가 깊은 인상을 남긴다. 전형적인 시중유화라고 평가할 만하다. 그런데 석정은 사경의 대상이 되는 그 그림 같은 광경을 畵境이라 표현하지 않고, 굳이 詩境이라고 표현한다. 석정이 이는 스님을 전승하면서 쓴 시이다.

26) 『연석산방시고2』.

佇立悵歸僧	우두커니 서 떠나는 스님 원망하니
平橋流夕景	평평한 다리에 황혼의 경치 흐르네
知渠無異能	그가 남다른 재능 없는 줄 알았더니
孤迥發詩境	외롭고 먼 시의 경지 발휘하네

〈送尙潤上人〉<sup>27)</sup>

해질녘을 배경으로 홀로 떠나는 초탈한 스님의 모습이 그려내는 한 폭의 그림 같은 광경을 보고, 석정은 詩境이라고 표현하였다. 그의 시에는 순수하게 寫景한 회화적인 시들이 많지만, 그 그림을 보는 듯한 광경이 주는 空靈의 여운을, 석정은 굳이 詩境으로 인식한다. 객관적 순수 묘사를 통해 언외지의적 여운을 남기는 絶句 寫景詩를 석정은 가장 풍부한 시의를 담을 수 있는 형식으로 인식했다고 판단된다<sup>28)</sup>. 그러므로 만남의 기쁨, 그리움, 이별의 서러움을 표현한 교유시들에서도 서정적 아취가 듬뿍 담긴 회화적 사경시가 주를 이루었고, 무목적적인 순수한 문예시가 대부분 절구 형식 사경시로 되어 있는 것도 그 예이다. 아름다운 자연, 광경, 조화로움에서 석정은 시경을 발견했고, 더 나아가서는 시가 추구해야 할 어떤 경지까지 상정하였다. 途中詩이다.

空江多疊石	빈 강에 수많은 겹겹의 바위
噴薄自相喧	치고 부딪혀 절로 시끄럽네
石盡平如鏡	바위는 모두 거울처럼 평평하여
纖知一髮痕	한 올 머리칼 흔적도 자세히 아네

〈過龍江村〉<sup>29)</sup>

27) 『연석산방시고4』.

28) 절구로 된 사경시가 석정이 쓴 대표적인 시 형식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석정의 『시고』에는 유독 장편시가 많다. 그러나 그 장편시들은 대부분 화답한 편지체 시이거나 문학적 이론을 논한 시 등 목적시이다. 본 단락에서 문제 삼은 시는 시인으로서의 석정의 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 순수 문예 시이다.

29) 『연석산방시고1』.

용강촌을 지나다 목격한 강가의 바위를 읊은, 일종의 詠物詩이다. 빈 강에 첩첩히 쌓여있는 바위들이 물살에 부딪쳐 부대껴 절로 소리를 내지만, 그 덕분에 거울처럼 반들거려 무엇이라도 비춰줄 정도로 단련되어 있는 바위의 모습을 그렸다. 그런데 석정은 苦吟과 단련을 통해 崎險 과정을 겪고, 平淡 경지에 도달한 시적 경지<sup>30)</sup>를 그 바위의 모습에서 연상했음을 어렵지 않게 간파할 수 있다. 아래 시를 통해 그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다.

行倦坐池上	길 가다 지쳐 못가에 앉으니
微風送細紋	산들바람 가는 물결 보내네
須與天色定	잠깐 사이 하늘 빛 안정되니
一鑿受晴雲	한 거울에 갠 하늘의 구름 받네

〈憩路邊池上〉<sup>31)</sup>

앞 시의 영물 대상이 바위였다면, 이 시의 영물 대상은 못이다. 산들바람도 자는 모든 정지의 순간 못은 그대로 水鏡이 된다. 단련을 통해 도달한 平淡의 경지, 즉 머리털 한 올도 그대로 비출 수 있는 거울처럼 되었던 경지와 같다. 사물에서 포착 가능한 어떤 경지에서 석정은 최고의 詩境을 연상하고 寫景을 통해 형상화하였다. 길을 가다가 포착한 景物을 寫景하여 繪畫性 강한 시를 지으며, 석정이 염두에 둔 것은 詩境이었고, 최고의 경지에 있는 시의 모습이였다. 자연 경물에서 시의 경지를 찾아내 형상화한 것이다.

이상 살펴본 바처럼 석정이 길가는 도중 읊거나 즉흥적으로 읊은 景物詩는 서정 부분은 거의 없고 寫景만 존재해 몹시 회화적이며, 그 시속에 등장하는 시적 화자조차도 객관화 되어 그림 속의 대상으로 화하는 특성

30) 석정은 학습론을 피력하면서, 崎嶇와 平淡을 결코 엮을 수 없는 상관관계로 피력하였다(「與李元瑞論詩說」, 『연석산방문고5』)(이월영, 전계 논문, 참조).

31) 『연석산방시고1』.

을 지낸다. 석정이 시속에서도 의미심장하게 말했듯이 그가 시폭에 담아내는 경물은 시적 운치를 지닌 詩境이다. 그러나 그 시경이 시폭에 담기지 않으면 畫境을 이룬다. 詩·畫 모두에 뛰어났던 그가 경물시에서 시경과 화경의 일치를 이뤄냈던 사실은 오히려 당연한 귀결처럼 여겨진다.

### 3) 題畫詩의 化境 追求

석정의 시 가운데 제화시가 많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시경과 화경의 일치를 이루어낸 석정의 시적 특성은 그 근본 원인을 따지자면, 詩 畫 書 모두에 능했기 때문이고, 그 세 가지 것이 동시에 성취되는 것이 그림 속의 題詩일 것이기 때문이다. 제화시는 기본적으로 그림에 그려진 정취를 심미안적 시취로 옮겨놓은 것이기에, 화중유시의 경지가 재생산되는 것이지만, 시만을 두고 볼 때는 결국 시중유화적 재생산이라 볼 수 있다.

석정의 제화시는 대략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대상 그림을 객관적으로 묘사한 것이요, 둘째는 그림의 傳神 경지를 파악하거나 제시한 시이다. 먼저 객관적 묘사시를 소개한다. <題畫三十二絕句><sup>32)</sup> 중 梅를 읊은 시이다.

小園殘雪在	작은 정원에 녹다 남은 눈 있으니
縹約兩三枝	가냘프고 아리따운 두 세 가지라
近屋無風處	집 가까이 바람 없는 곳
橫窓有月時	가로달이창에 달 뜬 때라

제화이지만, 시 자체만 두고 본다면 매화를 직접 읊은 영물시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매화를 대상으로 그림을 그린 동시에 매화를 대상으로 시를 썼을 수 있다. 아니면, 석정은 그림 같은 경물에서 시적 운치를 읽어

32) 『연석산방시고4』.

내 詩境이라고 표현했듯이, 그림 속에 내포되어 있는 시적 경지를 읊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여하튼 시적 결과는 시 폭에 그려진 한 폭의 그림이다. 그림 속의 시점은 겨울이 미처 가지 못하고 봄 또한 미처 오지 못한 스산한 환절기이다. 그런 시점에 가냘프고 아리따운 雪中梅 두세 가지가 자태를 드러내 봄을 알린다. 집 가까이 바람 없는 곳은, 매화가 피어있는 공간적 처소의 환경이다. 사람 눈에 발견되기 쉬운 안전한 곳에 매화가 자리하고 있다. 마지막 구, 가로단이창에 달 뜬 때는, 시적 화자가, 매화를 보는 처소 및 시간대의 분위기이다. 아울러 매화가 그 자태를 가장 시적으로 발산시킬 수 있는 시공간일 수 있다. 가로단이창을 통해 달 뜬 밤 달빛을 받고 있는 매화를 바라보고 있다. 시적 화자는 시를 읊고 있으며, 그러한 광경이 그림에 옮겨졌다. 시 속에 그림이 있지만, 이미 그려진 그림 속에 시적 운치가 물씬 풍겨난다. 시화일치를 완결해낸 시이다.

제화시답게 그림의 경지에 대해서 감탄하는 마음을 드러낸 시도 있다. 菊을 읊은 시다.

木落花初發	나뭇잎 지고 꽃 막 피어나니
霜清色愈鮮	서리 맑아 색 더욱 곱구나
聊將春日事	잠시 봄날의 일 가져다
移此九秋天	이 가을철에 옮겨 놓았네

昔在籬邊老	예전엔 울타리 가에서 시들더니
今從屏上開	지금은 병풍 위에 피었구나
天然堪摘取	천연함 꺾어 가질만하니
相對酌深酒	마주하여 술잔 나누네

첫 수는 국화를 읊은 시요, 둘째 수는 국화 그림을 읊은 시이다. 첫째 수는 모든 식물이 시들고 지는 가을철, 서리 맞으며 비로소 피어나는 秋菊花의 보편적 의미를 말하고 있다. 반면 둘째 수는 병풍에 그려진 국화 그림의 팝진성을 표현하고 있다. 실제 국화처럼 상대하여 잔나누고 싶은 마

음이 나게 할 만큼, 앞서 읊은 국화의 의미가 그림으로 옮겨져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題畫三十二絕句>에서 읊은 시들은 대부분 이처럼, 실제 대상물과 그림에 그려진 대상물을 차례로 읊고 있는 형식이다.

그런데 두 번째에 해당하는 시, 즉 그림 속의 대상물을 읊은 시들은 단지 그림이 지닌 팝진성에 대해 경탄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그림 혹은 시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예술적인 경지를 형상화하거나 논의한다. 蓮을 읊은 시이다.

開硯傾珠露	벼루 열어 구슬 이슬 기우니
靑蓮卽畫師	푸른 연이 곧 화공일세
天然去雕飾	치장 제거한 천연함 있어야
正是寫眞詩	진실로 잘 그려낸 시라네

靑蓮 즉 그리려는 대상 자체가 곧 화공이라는 것은, 그 자연적인 청련의 모습이 가장 높은 경지의 예술이며 그림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곧바로, 치장을 제거하고 천연해야 진실로 寫眞詩라고 말하고 있다. 寫眞畫가 아닌 寫眞詩인 것이다. 이는 앞서 그림 같은 경지를 詩境이라고 표현했던 것과 같다. 꾸밈의 부자연성을 극복하고 도달한 천연함, 이를 최고의 예술 경지로 상정한 것은 두말할 것 없고, 화경을 시경으로 대체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석정은 그림의 경지 속에서 늘 시적인 운치를 읽어냈던 것이다.

앞서 경물사에서 청각적 이미지도 시각적 이미지로 귀결되며, 시적 화자조차도 사경의 대상이 되어 시의 화폭 속에 그려짐을 보았는데, 제화시에서는 화폭에 그려진 그림 속에서 오히려 다른 감관적 감각을 읽어내기도 한다. <題畫十二首><sup>33)</sup> 중 대[竹]를 읊은 시이다.

臨風對幽竹	바람에 임한 그윽한 대 대하니
-------	------------------

33) 『연석산방시교2』.

竹與風相宜	대와 바람 서로 화목하네
一自入毫端	일단 붓끝에 들어간 후로
寥寥息萬吹	적막하게 온갖 바람 자네
奔騰枝與葉	뛰어오르는 가지와 잎
披拂誰所爲	쏟리고 흔들리고 누가 하는 바인지
無聲化有聲	소리 없음 화하여 소리 있으니
見者紛驚疑	보는 자들 분잡하게 놀라 의심하네
若道眼爲耳	만약 눈이 귀 되었다 말한다면
足以詔絕奇	더없이 신기하다 자랑할 수 있으리

‘대와 바람 서로 화목하다’는, 대에는 바람이 불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제격이라는, 바람과 대가 이루는 소리의 조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대가 그림으로 그려지면 온갖 바람 소리 적요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림 속 비등하는 가지와 잎은 무엇이 그렇게 하는 것인지, 들여다보니 소리 없음이 문득 소리 있음으로 화하여 청각적 소리의 환상을 몰고 온다. ‘無聲化有聲’의 化는 석정이 문학론에서 최고의 경지를 의미하는 化境을 의미한다. 즉 法古의 집적과 단련을 통해 도달하는 創見의 경지, 形似의 집적과 단련을 통해 도달하는 傳神의 경지, 崎險의 단련을 통해 그 경지를 극복해야 도달하는 平淡의 경지가 그것이다.<sup>34)</sup> 청각의 시각적 묘사가 극에 이르러 청각적 환치의 환상을 일으키게 할 수 있다면 그림이 추구하여 도달할 수 있는 化境일 것이다.

傳神何處在	전신은 어느 곳에 있는가
默想滿庭陰	뜰 가득한 그늘을 묵상하도다
認取形生影	형체에 그림자 생김을 인식하나니
蒼然用意深 <sup>35)</sup>	창연한 마음 씀은 깊도다

34) 그는 工(공들임, 공부, 가다듬음)을 최대한 집적하는 盡工을 통해야만, 타고난 천성을 완전히 발현하는 盡性이 이루어지며, 성공적인 진성은 化境으로 도약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創見, 傳神, 平淡한 시풍 등은 이 化境에 도달해야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이월영, 전개논문, 참고).

梧桐을 읊은 제화시이다. 오동나무 그림을 직접 묘사한 부분은 없다. 傳神해야만 그림의 혼이 담길 수 있다 여겼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을 2구에서 하고 있다. ‘滿庭陰’이다. 그림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느 순간 포착하여 강렬한 이미지로 남았던 오동의 詩想을 떠올리는 듯하다. 오동나무의 깊은 그림자가 것처럼 강렬한 이미지로 남아있고, 그 경지를 제대로 표현해낼 수 있어야 전신할 수 있다 여긴 것이다. 그 강렬한 이미지는 바로 회화적인 시취이다. 그림과 시가 동시에 존재한다. 그림 같은 경물에 탄복하며 詩境이라 표현했듯 畫境 속에서 詩境을 떠올렸고, 시 쪽에 그림을 그려 넣었으니, 그가 제화시를 즐겨 썼던 이유이며, 시서화 삼절이라 평가되었던 그가 추구하던 詩畫一致의 경지였을 것이다. 이미 팝진성의 경지는 떠나 있다. 그림에서 추구한 전신은 시취의 언외지음 효과와 비견될 수 있고, 이는 강한 시적 정서, 강한 회화성이다. 시에서는 그림으로 화하고, 그림에서는 시로 화하는 창의적인 化境을 석정은 중국적으로 추구했다고 말할 수 있다. 석정은 그래서 심미적 化境을 포착하여 영구히 보존할 수 있는 예술을 사실적 현상이나 실물보다 더 귀중하고 고상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하였다.

人道眞梅好	사람들은 진짜 매화 좋다 말하지만
吾憐畫更好	나는 매화 그림 더욱 좋아 하네
高標看已潔	세속 높이 초월함 이미 조출하며
未有減容時 <sup>36)</sup>	용모 감쇠하는 때도 없어라

그림이나 시가 추구하는 것은 寫眞이다. 이 寫眞은 寫形에 익달하여 그 차원을 넘어서 傳神할 수 있는 경지를 의미한다. 매화의 정신을 담은 시와 그림은 眞梅보다 더 값지다. ‘세속높이 초월함 이미 조졸하다’ 한 것은 매화의 정신이다. 그리고 그 매화의 정신을 담아낸 그림은 매화의 형사를 극

35) <題畫十二首> 중 『시고5』.

36) <題圈白梅 六首> 중 6수, 『시고5』.

복하여 傳神한 경지인 것이다. 이는 예술이 도달할 수 있는 극치이며, 목적이기도 하다. 그런 그림을 볼 때마다 매화의 정신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꽃핀 그 시점에서만 감지할 수 있는 매화의 고결한 자태를 포착하여 영원히 보존할 수 있는 梅花畵의 가치는 일시적인 眞梅의 존재에 비견될 수 없이 귀중한 것이다. 매화그림을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림의 이상, 예술의 극치를 논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상 살펴본 바처럼 석정의 제화시에는 그림의 대상물을 직접 읊은 시도, 그림의 꺾진성을 감탄한 시도, 그림의 이상이나 극치를 논한 시도 있다. 그림의 이상이나 극치를 논한 시 가운데에는 그 이상경을 형상화시켜 그림의 운치가 물씬 풍기는 시중유화적 시도 있다. 그러나 여하튼 그가 제화사에서 중국적으로 추구한 것은 化境, 즉 傳神이며, 그의 제화시는 이를 회화적으로, 논리적으로, 또는 시적으로 표현하였다.

#### 4. 맺음말

석정 이정직 문필생활은 문인들과의 교유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가 봉성지방을 찾아 그 곳 문인들과 교유하며 쓴 기행문 『燒餘錄』은 문필생활의 실상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자료라 볼 수 있다. 그 곳에서 詩會 및 詩社에서의 활동, 把臂者 및 從遊者와의 교유, 그리고 시문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문필생활의 주된 장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지은 시에 붙인 제목이나 詩序에서도 그의 주된 작시의 장은 바로 교유를 통한 작시였음이 거듭 확인된다.

교유시중 예술미학적 특색이 드러나는 시는, 만남의 즐거움, 헤어짐의 아쉬움, 그리움 등을 읊은 서정적 정감이 물씬 풍기는 작품들이다. 이밖에 경관을 회화적으로 읊은 寫景詩와 그림의 지고한 예술성을 시로 형상화한 제화시를 통해 우리는 시인으로서의 석정의 예술적 성향을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다.

석정은 ‘詩書畫三絶’이라고 일컬어지는 만큼, 詩에서는 畫趣를 그림에서는 詩趣를 추구한 것처럼 여겨진다. 길가다 목격한 경물을 읊은 途中詩는 주관성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객관적으로 寫景하여 회화성이 두드러지고, 그로 인해 언외지의적인 여운을 동반하는 심미적인 이미지를 남긴다. 그리고 그 사경의 대상이 된 그림 같은 경물을 석정은 스스로 詩의 최고 경지로 표현하여, 그림의 경지와 시의 경지, 즉 畫趣와 詩趣를 동일시한다.

그의 題畫詩는 그림 같은 詩境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림이 보여주는 예술의 경지에 감탄하거나, 그림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경지 傳神에 대한 논리를 시적으로 형상화한 경우도 있다. 이는 시화일치를 높은 시경으로 인식한 그의 시관을 보여주며, 詩癖으로 자처했던 석정이 예술 최고의 경지, 즉 化境을 끊임없이 추구한 사실을 입증한다.

석정 이정직은 문학에 대한 논의 문학론에도 열정을 보인 동시에, 그 문학론에서 최고의 경지로 제고하였던 平淡, 水鏡의 경지를, 詩·書·畫의 예술 장르를 통해 형상화하려고 노력했던 匠人 기질의 예술가였다. 시에 대한 열정 때문에 詩魔가 끼어 병이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시를 짓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詩癖의 소유자였으며, 자신이刻苦하여 精進한 그 과정과 결과를 체계적으로 계통화하여 문학론을 전개한 문학론자이기도 하다. 본 논문에서는 시작품의 분석을 통해 그의 문학론이 작품에 반영된 일단을 확인해 보는 단초를 마련해볼 수 있었다. 이를 계기로 이정직 문학론과 그의 예술세계의 상관관계는 이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복합적으로 고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참고문헌

- 李定稷, 『燕石山房未定詩文集』.  
『石亭李定稷遺稿』, 김제문화원 발간, 20002.  
구사회, 「석정 이정직의 문장 의식과 문예론적 특질」, 『국어국문학』 136, 국어국문학회, 2004.5.30.  
\_\_\_\_\_, 「石亭 李定稷 文論에 관한 研究」, 『韓國言語文學』 제52집, 한국언어문화회, 2004.6.  
노평규, 「이정직의 실학사상에 대한 연구」, 『다산학보』 제8집, 한국유교학회, 1986.  
박중홍, 「이정직의 칸트 연구」, 『박중홍전집』 v, 형설출판사, 1990.  
오종일, 「實學思想의 근대적 轉移-石亭李定稷의 경우」, 『한국학보』 제35집, 일지사, 1984.  
이월영, 「石亭 李定稷의 文學論 考察」, 『어문연구』 46집, 어문연구학회, 2004.12.

<투고일 : 2006. 1. 12. 심사일 : 2006. 2. 3. 심사완료일 2006. 2. 15.>

<Abstract>

## A study on Seok-Jung Lee Jung Jick's literary life and the feature of his poem

Yee, Weol-young

Soyeo Analects[燒餘錄], Lee Jung Jick's trip sketches of Bong Castle, informatively reveals some phases of his literary life in late years. It can be grasped through the contents of Soyeo Analects[燒餘錄] that his literary life was spreaded in a workshop for poem and a society for poem, and that he had an active debate on literature and a companionship for literature with Pahviza[把臂者] and Jongyouza[從遊者] in which their literary communion transcended their age.

Some works, among his communion poems, that reveal a tint of aesthetic feature give off such lyrical emotions as the delight of meeting, the regretfulness of separation, the yearning for friends etc. Besides, its artistic and aesthetic feature is revealed in 'a photographic poem[寫景詩]' describing a scenery pictorially and 'a picture-describing poem[題畫詩]' incorporating poem, writing, and picture together.

Seok-Jung pursued a picturesque taste in a poem and also conversely a poetical taste in a picture, which made it possible for him to be called 'a prodigy for three: poem, writing, and picture[詩書畫三絕].' On-the-way poem[途中詩], in which he picturesquely sang the natural scenery of the season witnessed by himself on the way to his place, has a conspicuous picturesqueness, excluding subjective elements and catching purely such a objective scene as a photograph, which enable his work to leave the meaning outside words behind as a trailing note. Moreover, he identifies a stage of picture with a stage of poetry, namely a pictorial taste with a

poetical taste, by expressing, to the uppermost stage of poetry, the pictorial scenery of the season which becomes the object for a photographic scene in his poem.

His 'concept-picturing poem[題畫詩]' not only shapes a deeply feeling stage of art that a picture shows, but also poetically shapes a logic for clarifying human introspection[傳神], as the highest stage that the picture can show. This can be recognized as an artistic shaping to reflect his viewpoint of poetry in which he regards the trailing note for delivering an implicated meaning from emptiness[空靈], which the stage of picture[畫境] leaves behind, as the highest stage of poetry, namely 'Wha-Kyoung[化境].'

**Keywords** : Soyeo Analects, photographic poem, a picture-describing poem, Wha-Kyoung[化境]